

창원 성주사(주지 법안)는 5월 16일 성주사 '깨달음의 길'과 경내 일대에서 코로나 조기 종식을 위한 삼보일배 기도법회를 진행했다. 삼보일배를 마친 불자들은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을 터트렸고 간절한 마음으로 코로나 극복을 발원했다.

생명위한 3보1배…"코로나 소멸 발원"

[현장] 창원 성주사 코로나 종식기도

불모학당 초심 불자들 동참
청정한 마음으로 극복 기원
동참자 환희심에 눈물 바다
생명존중 불제자 양성 서원

창원 성주사=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석가모니불을 부르며 세 걸음 옮긴 후 불자들은 허리를 숙였고 머리를 땅에 대고 절을 했다. 다시 일어나 세 걸음을 걷고 반복해서 절을 했다. 간절한 기도와 참회로 부처님께 귀의하는 '삼보일배'가 펼쳐졌다.

창원 성주사 불자들은 5월 16일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에 발생한 아픔이 곧 자신들의 고통이라 말했다. 건강과 행복이 다시 생명에 깃들길 기도하며 불자들은 묵묵하게 발걸음을 옮겼고 마지막 순서로 발원문을 낭독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빠진 고귀하고 거룩한 생명들이 청정한 마음과 몸으로 감염병을 이겨내고 함께 일어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삼보일배를 마친 불자들은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을 터트렸고 간절한 마음으로 코로나 극복을 발원하고 기도했다.

창원 성주사(주지 법안)는 5월 16일 성주사 '깨달음의 길'과 경내 일대에서 코로나 조기 종식을 위한 삼보일배 기도법회를 진행했다.

삼보일배 기도법회에는 성주사 주지 법안 스님과 불모학당 학생들이 참석했다. 불모학당은 성주사 불교대학 기초 과정이다. 이들을 돕기 위해 성주사 포교사단과 불모회도 함께 했다. 삼보일배 기도 정진에는 10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했다.

기도법회 시작 전 주지 법안 스님은 삼보일배가 스스로 청정해지는 기도 수행임을 강조했다.

법안 스님은 "삼보일배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맑아질 때 주변 인연들도 마음이 맑고 가벼워진다. 이 시간이 과거 업장을 깨끗하게 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인간의 욕심으로 발생한 코로나가 하루 빨리 종식되도록 마음내고 기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주사 앞마당은 전날 내린 비로 인하여 진흙탕이었다. 공기가 습해 조금만 움직여도 땀으로 온몸이 끈적거렸다. 무릎과 팔꿈치에 보호 장구를 덧댔지만 절을 할 때 마다 비틀거릴 수 밖에 없었다. 금방이라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석가모니불 정근소리와 목탁소리에 의지해 머리를 조아렸다.

성주사 '깨달음의 길'과 지장전을 거쳐 대웅전에 도착하기 까지 궂은 환경에서 2시간 가량 이어진 삼보일배에도 단 한명의 낙오자는 없었다.

대웅전에 도착한 불자들은 발원문을 낭독했다. 불자들은 부처님 제자로서 중생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불자들은 "삼보일배에 동참한 저희들은 어리석었던 지난 삶을 참회하고 부처님 제자로 거듭 태어나 중생을 위해 살 것을 약속한다"며 "오늘 오체투지는 뭇 생명에 대한 사랑과 존경, 감사이자 그들의 평화와 행복에 대한 염원"이라고 말했다.

발원문을 낭독하는 중간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많았다. 부처님 명호를 부르며 대웅전을 향해 기도하는 이들도 보였다.

불자들은 삼보일배 법회 회향식에서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동참했지만 삼보일배를 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몸으로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현주 포교사는 "준비과정부터 어려움이 많아 '여법하게 진행 될 수 있을까'는 걱정이 많았다. 전날 비가 쏟아져 날씨부터 걱정을 했는데 무엇보다 여법하게 회향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범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환희심으로 눈물이 나왔다. 우리들의 기도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성호 불모학당 학생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동참해 무엇보다 기쁘다"며 "코로나는 전 세계의 재앙이다. 기도 내내 하루 빨리 종식되기를 염원했다"고 말했다.

주지 법안 스님은 "모두를 위해 박수를 쳐달라"고 격려하며 "앞으로도 부처님의 불제자로 생명을 위해 기도하고 수행을 이어 가길 바란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고통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삼보일배 기도법회는 '덕분에 챌린지'로 막을 내렸다. 발원문 낭독 후 불자들은 대웅전 앞 계단을 둘러서서 손을 모으고 왼손 바닥에 오른손을 놓았다.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고 환하게 웃으며, '덕분에 챌린지' 퍼포먼스를 동참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그들은 힘차게 "화이팅"을 외쳤다.

Interview



입재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주지 법안 스님.

"청정한 희망의 등불을"

성주사 주지 법안 스님

삼보일배 수행을 가장 앞에서 주도하며 불자들을 이끌고 묵묵하게 기도하던 주지 법안 스님은 "코로나는 인간의 탐욕과 오랜 과거 쌓인 업장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자신을 맑히고 청정하게 하는 것이 참회이며 업장을 녹이는 것이 주변을 위한 치유이자 선물이라 말했다.

이어 부처님오시날을 맞아 온 세계에 희망의 등불이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희망을 담는 기도로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자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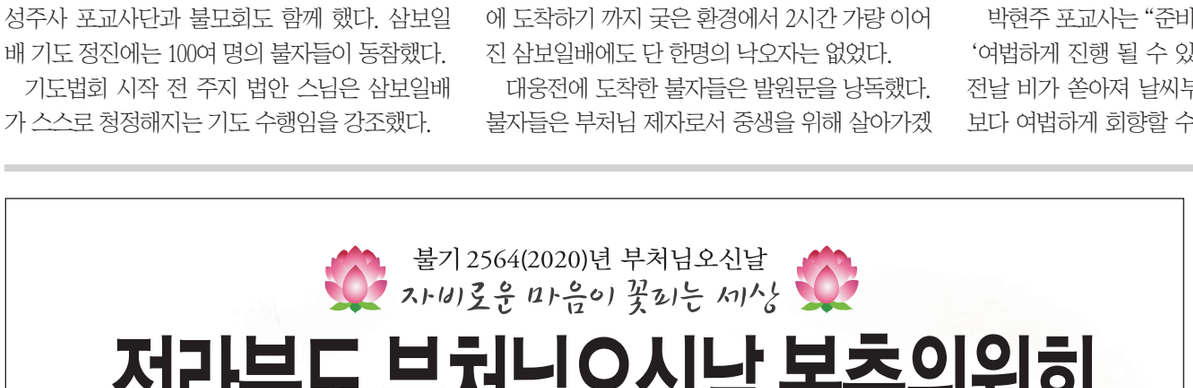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들의 정성으로 켜 올린 연등은 어느 때보다 크고 밝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이 등불이 자비의 불빛이 되어 멀리 퍼지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전라북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증명 태공 월주 대종사

전북봉축위원회 공동위원장 성 우 | 조계종 교구 17교구본사 금산사 주지
진 성 |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수석부위원장 일 원 | 조계종 제17교구 금산사 부주지
부위원장 원 혜 | 조계종 남고사 주지
도 홍 | 태고종 전북종무원 부원장
지 용 | 보문종 정혜사 주지
용 성 | 용화종 원각사 주지
지 정 | 총지종 흥국사 주지
집행위원장 회 일 | 조계종 참좋은 우리절 주지
이근재 | 전북불교신도회장



전북 완주군 이서면 갈산로 45 TEL 063)224-4441 FAX 063)224-44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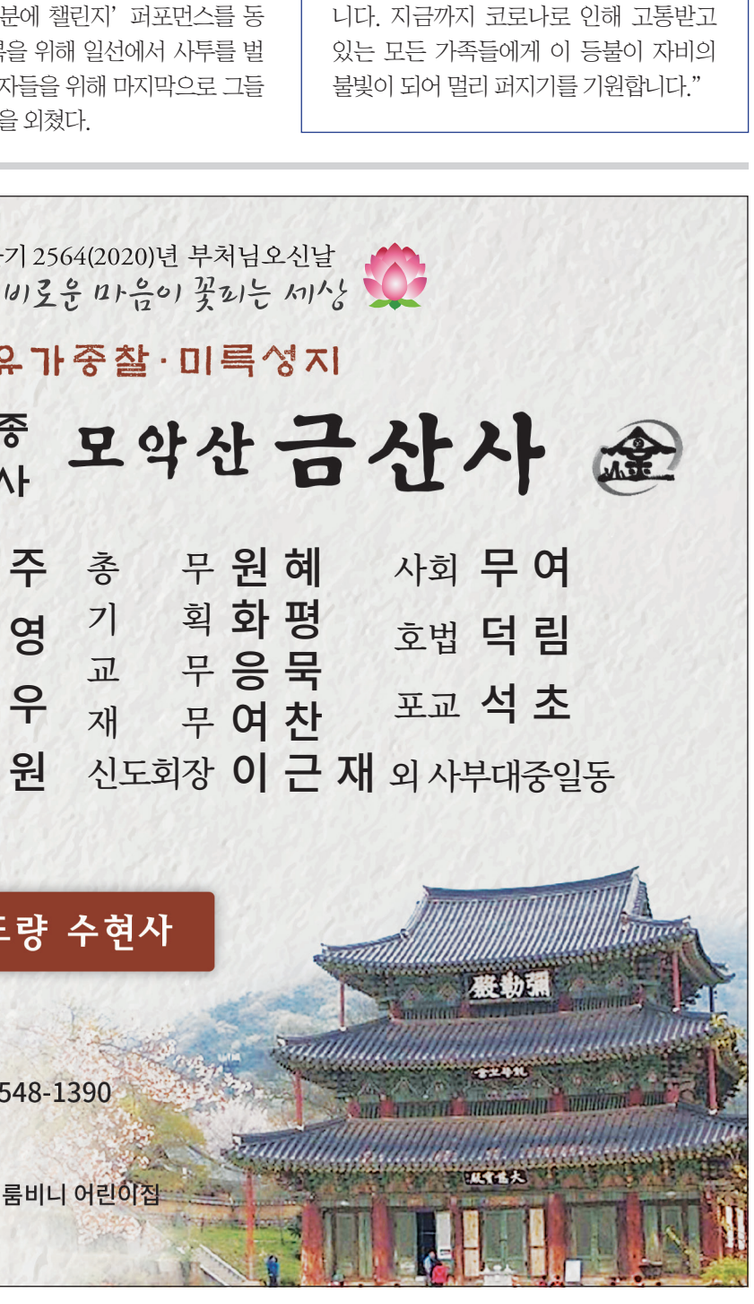
불기 2564(2020)년 부처님오신날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유가종찰·미륵성지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본사 모악산 금산사

조 실 태공월주 총 무 원혜 사회 무여
회 주 금산도영 기 획 화평 호법 덕림
주 지 자산성우 교 무 응묵 포교 석초
부주지 월강일원 재 무 여찬
신도회장 이근재 외 사부대중일동

전주 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



전북 김제시 금산면 모악 15길 1
Tel. 063)548-4440~2 Fax. 063)548-1390
www.geumsansa.org

부설 전북불교회관 | 서원노인복지관 | 룸비니 어린이집
전주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